

21세기와 禪

과학의 시대 禪風 불교 있다



삼매

사진·안장현

◇햇살이 비껴드는 선방에는 정적인 침묵이 흐른다. 한 순간도 놓칠 수 없는 화두에 온 몸을 맡기고 좌선심매에 든 스님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오를 날은 언제일까. 선문밖의 생활인에게는 삶의 현상이 곧 선수행의 자리다. 매순간 매시에서 삼매의 미소를 흐트리지 않으므로 '탐만 중인의 세계'를 실현하는 것이 참다운 자신의 삶을 지켜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니런선하의 신세벽에 발빛 보고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은 그 깨침의 요체를 어떻게 전했는가. 한송이 연꽃을 들어 보이셨고 은근히 자리를 내어 주셨으며 관(觀) 밖으로 두 발을 내 보였을 뿐이다. 이른바 말에 떨어지지 않고 본법에 얽매이지 않는 이심전심(以心傳心)의 아름다운 전법이 세곳에서 이뤄짐(三處傳心)이다.

말이 끊어진 곳에서(言語道斷), 마음 자리를 꿰뚫어(透指人心), 본래의 성품을 봐 부처를 이룬다(見性成佛). 이 무량한 염원은 부처님 이전이나 이후나 다를 수 없다. 그래서 역대조사들의 활발발한 계합의 노래가 무명중생의 삶에 매어리처럼 전해 오는 것이리라.

겨울 햇살이 비껴드는 낙영산 공림사 감인선원. 붉은 끈으로 사방을 둘러치고 8명의 수좌들이 정진하고 있다. 바깥 사람의 출입을 막고 문마저 닫아 걸고 스님들은 각자의 화두를 붙들고 문밖의 옛새소리마저 들리지 않는 적멸 속에서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이는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다. 그 싸움이 끝나는 어느날, 가슴에 커다란 찢어터러기 때 울른 한 수좌가 낙영산이 무너지는 벽려같은 소리로 진흙소의 울음 한 줄기를 토할 것이다. 그 순간 죽었던 부처와 조사가 살아 와 발빛을 이고 영실영실 춤을 출 것이다. 아니다. 깨침의 새벽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스스로 그 새벽의 주인이 되는 날까지 정진 또 정진 하라고 했다.

속리산 법주사 증지선원에는 31명의 수좌들이 하

21세기가 바로 눈앞 인류는 과학에 대하여 물질만능에 대하여 위기를 느꼈는가 삶의 현상이 곧 수행처 '참나' 찾기에 나섰다

루 10시간의 좌선으로 부처와 조사들의 심인을 깎고 있다. 겨울 바람 속을 포행하던 진공스님은 문득 피 오르는 한 구절을 놓칠 수 없었다.

"하늘가의 살림살이여/백문이 무심코 청산을 의지함은/그 옛부터 조사의 가종일래라/그 뒤가 조사 가풍 물어 온다면/눈은 푸르고 눈썹은 회다하리/... 미소짓다." 그러나 스님은 이 또한 언어에 걸림임을 잘 알기에 끝내 문 밖으로 던져버렸다. 종이쪽지를 던져버린 순간 마음이 가벼워진 스님은 말없이 선방으로 돌아갔다. 지나가던 한 스님이 그 쪽지를 간직하고 있다가 기자에게 보여주고 "선승이 던져버린 것일지라도 한번 음미해 볼지하지 않은가"라며 웃어 보였다.

"말이 끊어진 곳에서 마음자리 꿰뚫어 부처를 이룬다" 이 무량한 염원 부처님 이전이나 이후에나 변함없다

깨달음에 산문 안과 밖이 따로 있었는가. 도심의 선방을 찾는 사람들에게도 생활의 고난을 이겨내는 지지인심의 쾌활한 노래가락이 그립다. 직장을 마치고 찾은 선방에서 자신의 참 모습을 찾아 떠나는 참선이라는 여행. 그 여행이 있어 살아가는 나날이 새롭고 민나는 사람들이 포근하다고 한다. 도대체 그 여행에서 무엇을 얻었다는 것인가. 과학과 기계문명으로 불편함 없는 세상을 꾸며낸 인류가 이제는 선수행에 매료되고 있다. 왜 그런가. 과학을 지배하던 인간이 과학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 인간 본연의 모습을 찾고자하는 본능 때문이라고도 말한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까.

21세기, 첨단 과학 정보화 시대에 선풍(禪風)이 불고 있다.

그 바람은 고대 인도의 사유문화가 낳은 '명예를 벗어 던지는' 바람이기도 하고 동쪽으로 간 달마가 전한 '아름 마음을 가져 오라, 내 아프지 않게 하리라'는 바람이기도 하다. 또 타넷의 성자들이 전한 '자기를 관하는' 명상이라는 이름의 바람이기도 하고 일본의 스즈키 다이세츠(鈴木大拙)가 학문의 체계로 정한 ZEN이라는 바람이기도 하다.

정치와 경제가 아닌 문화가 지배하는 21세기에 선풍은 어디서 어디로 불 것인가. 물질보다는 정신적 가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새로운 세기에 선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삶의 현상이 곧 선수행의 자리가 되어 온갖 번뇌와 고난을 극복하는 지혜의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선을 '민병통치약'으로 여기는 종조마저 형성되고 있으나 오히려 선을 잘 못 이해하면 더 큰 병을 얻을 수도 있다.

과학의 시대, 참 나를 찾는 열쇠가 선이라는 믿음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선을 두고 우리는 많은 질문을 하게 된다. 선 그자체가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의식의 자리에서 출발되는 것이라면 우리의 많은 질문은 당연한 것이겠다. 무인년 새아침에 선을 향한 공금증을 풀며 우리도 생활수의 선객이 되어 늘 화두를 쫓기자.

임연태 기자

세계의 선불교 현황 26

특별대담 '21세기 불교 왜 禪인가' 27

선의 실제 28

선의 효과 29

선 문화·선 체험기 31

佛紀 2542年

謹賀新年



2천만 불자가 앞장서
희망찬 무인년 새해를 열어 갑시다.

大韓佛教曹溪宗

宗正 老天月下
總務院長 太空月珠